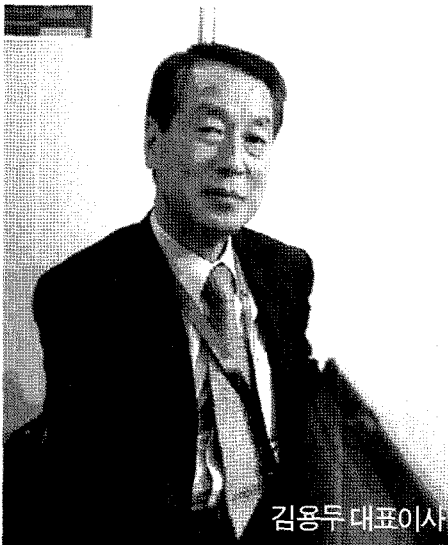


(주)NCM

“친환경과 핵심기술의 뉴 리더, 김용두 대표이사와의 만남” (주)NCM, 2010 그린 테크놀로지 혁명을 꿈꾼다!



(주)씨엠(대표이사 김용두)은 2002년 창립되어 현재 국내 비데업계 3위의 기업으로 혁신적이고 차별화된 제품만을 선보이고 있으며, 이미 전세계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글로벌 비데 전문기업이다. 이미 비데는 현대인들에게는 익숙한 제품으로 그 가치가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비데 전문 기업에서도 그기술력을 인정 받고 있는 (주)NCM의 김용두 대표이사를 찾아가 인터뷰해 보았다.



김용두 대표이사

◎ New Culture Meeting

회사명인 NCM은 New Culture Meeting으로 새로운 문화와의 만남이라는 뜻이다. 창업 1년만에 까다로운 일본시장에 당당히 수출하는 몇 안 되는 기업인 만큼 제품력과 기술력은 동종 업계에 비해 훨씬 앞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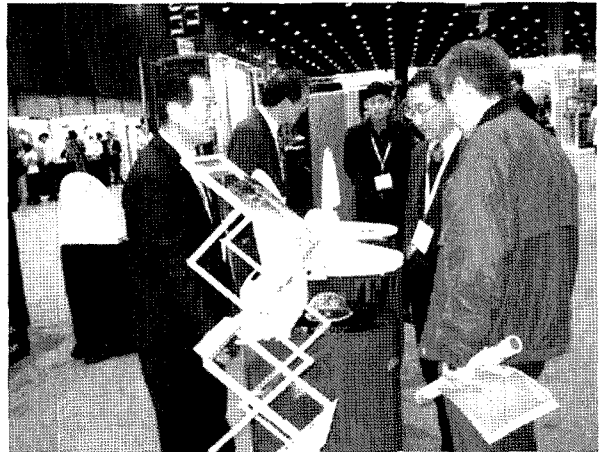
삼성전자 연구실장, 삼흥사 사업부장 경력의 김용두 대표는 창업 초기에는 낮은 브랜드 인지도로 인하여 고전했으나, 블루밍(Blooming) 브랜드를 런칭 하고 2009년에 국내 최대 양판 업체인 하이마트 전점에 입점 하는 등 이제는 년 매출액 200억 원을 바라보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이 같은 안정적 성장의 원동력은 차별화 된 기술력과 안정화된 품질경영이다. 전자동 광 센서를 장착해 화장실 전등을 끄면 자동으로 슈퍼절전 모드로 변환돼 전기를 대폭 줄일 수 있는 제품, LED를 장착한 비데 등이 그것이다. 또한 불편한 환자·노인 및 장애인들을 위한 비데를 자체개발, 국내외 시장 공략했기 때문이다.

◎ 해외에서 인정받는 기술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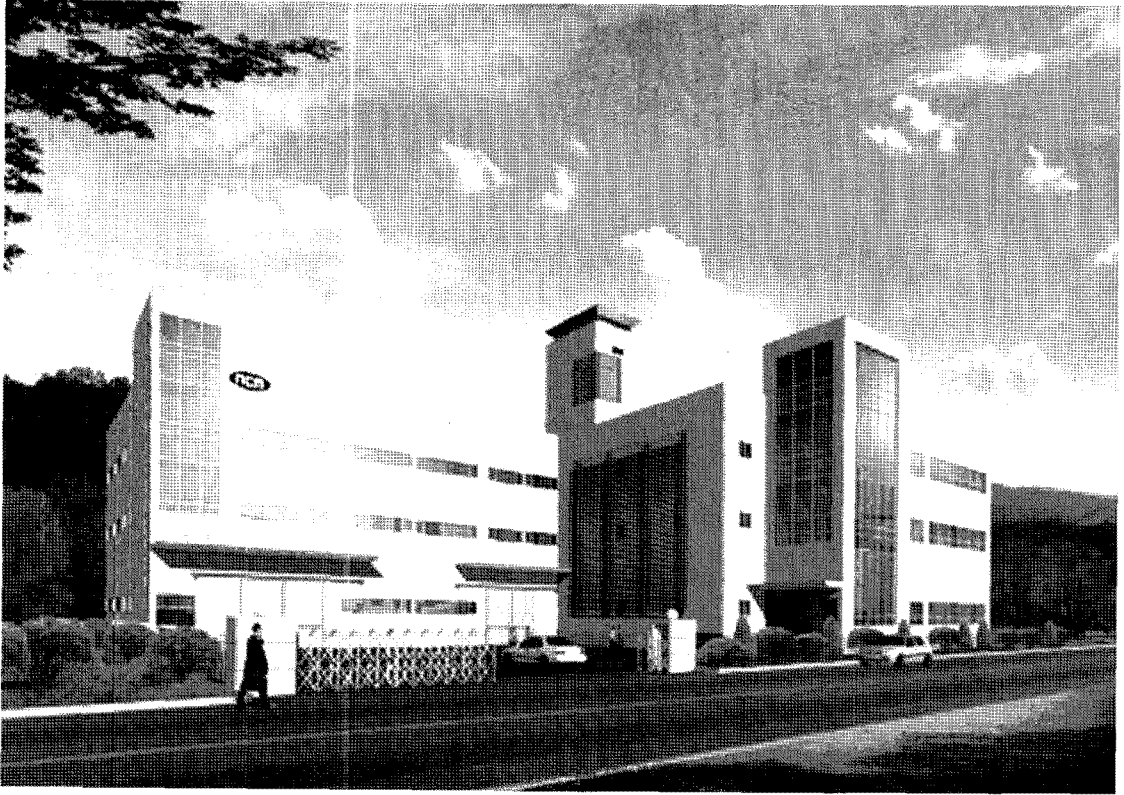
(주)엔씨엠은 이처럼 새로운 기능을 자랑하는 블루밍 비데를 일본·미국·중국 등 11개국에 수출해 지난 2009년 900만달러 이상의 수출 실적을 기록한 바 있다. 외국에서 더 호평을 받아 지난해의 경우 수출이 13만대에 달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특히, 일본내 대형업체인 산요(SANYO)에는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국내시장 또한 공격적인 영업을 전개하고 있다. 하이마트, 전자랜드 양판점 채널에 입점하여 최근 급성장하고 있으며, 대형마트인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에 입점 유통 중이며, 백화점 채널(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에도 블루밍 비데가 입점되어 판매 중이다. 또한 국내 유통 다각화 전략으로 최근 온라인 주요 종합 쇼핑몰 입점을 시작으로 on-line, offline의 다각화 유통전략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 건설시장에도 이미 오래 전부터 진출하여 GS건설, 벽산건설, 금호건설, 포스코 등 대형 건설사에 납품을 하고 있으며, 아메리칸 스탠다드 코리아, 대성셀텍 보일러 등에는 주문자상표 부착방식(OEM)으로 공급하고 있다.



▲ 해외박람회에서 바이어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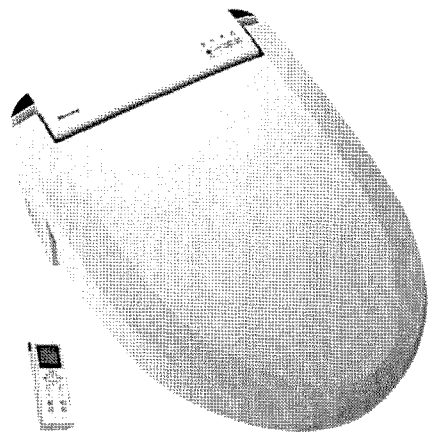
(주)NCM



▲ (주)NCM의 시육 조감도

◎ 화장실 문화의 변화를 선도하는 기업

지난 2006년에는 안산시 사사동 소재 테콤단지에서 자가공장을 완공해 이곳에서 약 100명의 생산인원이 연 20만대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김용두 (주)엔씨엠 대표는 “비데를 포함한 욕실관련 제품으로 한국은 물론 해외 화장실 문화의 변화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면서 “대기업과 경쟁하지 않으면서도 스피드와 특별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뚝뚝 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다!

엔씨엠의 블루밍 비데는 소비자들이 알고 있는 기존 제

▲ (주)NCM 블루밍 비데 'NB-R1060'

품과는 차원이 다른 다양한 기능을 자랑한다. 우선 물이 나오는 노즐이 세정 및 비데로 각각 떨어져있어 각종 이물질에 오염되지 않고 위생적이다. 더욱이 노즐은 알루미늄 금속 코팅 처리돼 있으며 별도의 세척기능이 있어 오염을 원천적으로 방지한다. 블루밍 비데의 가장 큰 특징은 탈취 기능, 화장실 불빛 감지 기능, 야광 보호조명 등이다.

비데에 탈취 기능이 있어 배변 등으로 인한 냄새를 없애준다. 화장실에 불이 켜져 있는지 감지해 불이 꺼지면 자동으로 초절전 모드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기를 절약할 수 있다. (주)엔씨엠은 세계최초로 개발된 이 기술에 대해 우리나라와 일본에 특허를 출원했다. 야광 보호조명은



▲ (주)NCM 블루밍 비데 'NB-R770'

변기 안이 푸른색의 형광빛을 내도록 만든 것으로 한밤중에 불을 켤 필요 없이 용변을 볼 수 있도록 했다. 또 이음매가 없이 설계를 해 물때가 끼거나 이물질이 들어갈 염려가 없으며 청소도 쉽다. 이밖에 온풍 건조, 방수 및 내습 등은 기본으로 갖춰져 있다. 품질 면에서도 독보적인 제품 설계기술과 내구성이 강한 소재, 수없이 반복 사용해도 오작동이 없는 부품을 사용함으로써 제품불량률이 거의 없을 정도이다. 또한 최상의 고객서비스를 위해 전국에 37개의 애프터 서비스망을 갖추고 있으며 이곳에서 소비자들의 요구사항을 2일 내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2011년도에는 국내유통에도 블루밍 브랜드 구축 마케팅 전략과 공격적인 유통 영업을 통하여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신시장인 대형 글로벌 기업과의 OEM 수출계약을 통하여 년 매출 300억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